

투데이 칼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역할

우리는 언론을 통해 믿지 않는 끔찍한 범죄를 접하고 그 잔악함에 공분한다.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삶을 뒤흔어 온 지 오래이다.

현대인에게 의식주 못잡게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소중함 명제가 된 지는 오래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갈구는 '보호관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새로운 제도를 범죄 발생 후 개입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 달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관찰소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

진국에서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9년 소년법을 시작으로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이 증명되면서 1998년 성인법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150만 명 이상이 보호관찰을 받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사람도 6만 명에 달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피할 수 있고, 가정, 직장 등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에 편입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범죄에 방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가 협력

하여 우리 이웃이면서 동시에 우범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또다시 범법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56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전주보호관찰소(1997.1)를 비롯하여 군산(2001.10), 정읍(2007.7), 남원(2007.7)에 보호관찰소가 있다.

한국의 보호관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갈망으로 탄생, 성장하였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적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인색하기만 하다.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범죄 억제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을 요해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범죄자의 형태만을 부각하여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범죄양상이 다양화되고 흉악 범죄는 늘어나지만, 갈 길은 멀고 완벽한 제도와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

다양한 범죄양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잡게 범죄 예방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재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이 안전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자세와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다.



임춘덕 전주준보호관찰소 소년팀장 보호관찰관

사설

지금은 군산항 발전에 매진할 때

예전에 지역 발전 열기가 뜨거웠는데 몇달이 지나 다시 분위기가 시들해진 요즘이다. 총선후 도지사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말이다. 그때 도민들은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볼 것 같다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고장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북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더 분발해야지 싶다. 전북의 유일한 관문인 군산항이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말로는 동북아 국제물류의 허브라며 요란하지만 보여주고 있는 게 별로라서 답답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항만하천과를 신설하면서 동북아국제물류 중심지를 표방했지만 그뿐이라는 보도이다. 역할 증대가 없기에 그런 평가가 나왔을 터이다. 군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가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당부한 그대로 도민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전북 지역이 보다 발전해 웰빙 고장이 됐으면 하

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새만금사업 말고는 없다는 게 문제이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지역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발전 보폭에 비하여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보통 실적의 성과에 만족해 안주해선 안 된다. 그 연혁을 생각하면 군산은 지금쯤 대도시가 돼 있어야 맞다. 시로 승격된 역사가 오래일에도 다른 항구 도시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전체 새만금 지구 중에서 군산은 산업지역으로 그 기대가 크다. 현재 군산 새만금의 미래를 경인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 군산항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군산항의 발전은 전북 지역 전체의 발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군산항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야 한다

추석을 코 앞에 두고 전북도에 계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근로 빈곤층을 살펴주고 헤아려 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도내의 근로 빈곤층 중에는 추석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을 터이다. 그리고 전북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독거노인들도 있다. 그들 대다수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다. 바로 그 때문이다. 노인 열 명 중에 네 명 꼴로 빚을 갚는 라 허덕이고 있다는 예전의 보고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그때의 그 보고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었다. 전북도가 조사해 내놓은 것이기에 관계자들은 지금도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갈수록 근로 빈곤층이 추석 명절을 버거워하고 있다. 근로 빈곤층 중에는 비정규 직장이 많은 까닭이다.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전북도가 근로 빈곤층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근로 빈곤층을 챙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돼 마땅하다.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전북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 살리기는 지역의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분명하다.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한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좀으러나와 그제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전북도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번 공표했었지만 뜻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하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기 위한 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북도는 계속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 민생 안정 실현은 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전북 지역은 다른 고장보다 근로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 예전에는 전북보다 작은 고장들이 지금은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앞질러 나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므로 전북도는 도내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려는 의지를 더욱 다져야겠다.

독자제언

우리의 명절 한가위, 나눔이란 의미를 생각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찾아왔다. 멀리 혹은 가까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부모 형제를 찾아 또 귀성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

'뭍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 진다'는 얘기는 최소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만큼은 예외일 듯 싶다.

세월이 가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애정은 더 애뜻해지니 말이다. 많은 분들이 명절 때면 힘든 여정을 마다 않고 기꺼이 고향 가는 길에 합류하는 것도 본능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옛 조상들은 '너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했었다. 추석이면 그 해 처음 수확한 햇 곡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나눠먹으며 즐겁게 명절 하루를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

추석은 부모, 형제, 친구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향의 기회를 함께 모을 기회다. 정겨운 이웃의 따스한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수 있다지 않은가?

우리 고향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

물을 이용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농어촌에 있다고 생각한다.

뿌리가 튼튼할 때 과실의 열매가 싹하듯 농어촌이 활기차면 국민 모두의 삶은 더 행복해 질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 고향과 농어촌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다.

내 고향 농산물이야말로 곧 우리의 건강도 지켜줄 최고의 보약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바쁜 세상, 각지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고향 찾아 먼 길 오시는 귀성객들께모쪼록 가슴이 푸근해지는 인정과 함께 나눔의 한가위 명절이 되었으면 하고 고향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아울러 금년 추석만큼은 취직이 늦어진 젊은이도 직장에서 밀려난 4~50대 중장년 분들도 모두 함께 명절 스트레스 하나 없이 일가친척과 뜻있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해본다.

방곡선 원산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수확철 농작물 도난예방 주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 무더위도 이제 한 풀 꺾인 듯 하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반팔옷이 어색할 정도로 선선한 기운이 감돈다. 그러나 농촌 시골 마을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들어 각종 농작물을 가꾸느라 한창 바쁜 시점이다.

지난 여름은 폭염주의보를 넘어 폭염경보에 이르는 등 최악의 여름으로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우리 농촌 마을을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농민들의 주름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농산물 도난이다.

여름내내, 아니 일년내내 정말 땀 흘린 보람을 눈물로 끝나게 하는 것이 농산물 도난인 듯하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하고 다르게 농산물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이다.우리 경찰은 농산물절도예방을 위해 농촌마을을 현장순찰 및 주민홍보, 목검문신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농산물 도난예방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내 농산물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가짐과 도난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하다. 각종 농산물을 도로나 공터에 건조시에는 보관이나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널리 놓은 농산물을 반드시 거둬 들여야 할 것이다. 마을에 낫선차량이나 수상한 차가 오면 변화나 특징을 적어 두는것도 뜻밖에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농산물은 잠금장치와 경보장치가 설치된 안전한 창고에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값비싼 농산물은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을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1년간의 수고를 허사로 만드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관리소홀로 인해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농산물절도 피해자가 없기를 당부한다.

이동권 순경경찰서 남계파출소경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